

코로나에 수해까지...지자체들, 군민 건강 지키기 총력

장성·화순·함평 등 행정력 총동원
집중 방역·비상의약품키트 지원
침수피해 생활폐기물도 신속 수거



장성군보건소 직원이 비상의약품을 전달하고 어르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함평군보건소는 수해가 심한 함평 5일시장 일대와 이재민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 등 피해지역에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피폐한 데 수해까지 덮쳐 지역민들이 망연자실이다. 이재민이 수천명에 이르고 농경지 침수,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손길을 내밀어 그나마 새 희망을 본다. 지자체도 수해 복구와 함께 지역민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장성군은 지난 6-9일 사흘간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함께 군민 건강 지키기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구급약품 등을 우선 지원했다. 장성군은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방역반을 편성해 오는 16일까지 침수 피해가 특히 심한 장성읍, 진원면, 황룡면, 북하면 등 10개 지역의 침수 주택과 주민 민가, 공동이용시설 등에 하루 1회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주택침수로 토사와 오염된 물에 장시간 노출된 120여 세대에는 피부질환 치료 연고를 비롯한 11종 14개 품목이 담긴 비상의약품키트를 지원했다. 또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봉사단체(새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기부한 세제와 생활용품

도 함께 전달했다.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5곳에는 전담반을 배치해 건강상태 문진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화순군은 수해 복구와 함께 주택가 생활환경 정비에 나섰다. 수인성 전염병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다. 화순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생활쓰레기 수거 등 복구 작업에 나서 생활 폐기물 1000여을 수거했다. 저지대 침수 가옥에서 배출된 가재도구 등 폐기 처분이 불가피한 생활폐기물, 하천으로

밀려온 부유물 등 수해 폐기물 수거를 서두르고 있다. 화순군은 이달 말까지 침수피해 생활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해 피해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다"며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면 악취·해충 발생 등 2차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폐기물 처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침수 피해를 입은 9개 읍·면 경로당과 피해 가구에 대상으로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또 손소독제와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도 병행 실시했다. 비교적 큰 피해를 입은 함평 5일시장 일대와 이재민 대피소(경로당) 7개소, 침수주택 60여 가구에 대해서는 방역차량 2대와 수동분무기 8대를 활용해 분부 연막 소독을 실시하는 등 꼼꼼한 방역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황은학 기자 hwang@kwangju.co.kr

소상공인·중소기업 호우 피해 신고하세요

담양군, 18일까지 접수

담양군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8-9일 내린 기록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나 담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이 되면 해당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정책자금 융자와 은행 대출금 상환 유예, 신용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담양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영업 결손액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담양군 풀뿌리경제과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함평 영월지구 공동주택 건설 1280억원 투입

군, 센트럴투자개발과 협약
빛그린산단 주거배후단지 조성
573세대 규모 2025년까지 건립



이상의 함평군수(오른쪽)와 심동남 센트럴투자개발 대표이사가 지난 12일 함평군청에서 월야면 영월지구 공동주택건설 투자 협약을 맺었다. <함평군 제공>

빛그린국가산단 배후부지인 함평군 월야면 영월 지구에 오는 2025년까지 1280억원이 투입된다. 함평군은 지난 12일 군수실에서 센트럴투자개발과 투자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월야면 영월 지구에 공동주택건설 등 총 12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심동남 센트럴투자개발 대표이사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군수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구매,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을 심 대표이사에 요청했다. 월야 영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빛그린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함평군이 추진하는 주거배후단지 조성사업이다. 함평군은 산단 조성 이후 공장 근로자 등의 인구

평부지(3만6772㎡)에 공동주택7개동(573세대), 근린생활시설 3개동 건립을 주요 골자로 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 간 추진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디지털정보대전, 자동차산업, 광산업, 첨단산업 등을 빛그린산단 내 우선 유치 업종으로 정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함평군 자체적으로 임지보조금의 10%(2억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대상에도 빛그린산단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kwangju.co.kr

나주 동강면 10개 마을 정신건강행복마을 지정

나주시가 동강면 소재 마을 10곳을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정신건강행복마을로 지정했다. 나주시보건소와 공동협약기관인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경민)는 13일 동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서마을 등 10개 마을과 '정신건강 행복마을 지정 협약식'을 개최했다.



나주시보건소와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일 동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강면 소재 10개 마을과 정신건강 행복마을 지정 협약식을 했다. <나주시 제공>

정신건강 행복마을은 농촌 지역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을 지정,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 지정된 동강면 진서마을 등 10개 마을 주민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정신건강 선별검사, 자살 예방교육, 정신건강 이동상담, 구강보건사업, 치매 예방교육 및 검진 등 통합·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 해당 마을 100가구에 농약보관함을 보급하고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양성해 농촌지역 고질적 문제를 꼽히는 음독자살 예방에 힘을 기울인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노안·세지·산포면 소재 19개 마을을 정신건강행복마을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